



예배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교계 지도자들, 화랑청소년재단 청소년들.

6·25 68주년 “하나님과 참전용사에게 감사”

남가주목사회 상기 예배 및 참전용사 감사 행사

6·25 68주년을 기념해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6·25 상기 예배 및 참전용사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6·25와 삼일절은 목사회, 광복절은 교회가 기념행사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최측 추산으로 그간 6·25 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남가주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30여 명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까지 마련돼 더욱 뜻깊었다.

24일(주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전주영생교회의 강희만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민족이 68년 전 공산주의의 침범을 받아 강도 만난 자와 같을 때 UN군이 천사처럼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감사를 전하고 “특히 미국은 전후에 경제적 도움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관진 목사(남

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가 사회, 조종곤 목사(남가주연목회장)가 대표기도, 장혜숙 목사(OC여성목사회장)가 성경봉독, 이상권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김희창 목사(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장), 박시현 목사(한국 영광군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회장), 주재임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김엘리아 목사(남가주목사회 운영위원장)가 기도 인도, 안선신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장)가 헌금기도하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예배 중에는 목사장으로부추양단, 예루살렘성단·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이 특송하는 시간도 있었다.

참전용사 감사 행사는 재미헌병전우회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사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인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미주대표)가 참전용사를 위해 기도했다. 이 시간에는 화랑청소년재단 소

속 한인 청소년들이 6·25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감사의 꽃을 담아주었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부의 김해룡 회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30여 명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전했다. 특별히 정동익 장로(남가주목사회 이사장)가 남가주목사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샘 신 목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용감히 싸운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에 감사 드린다. 우리는 똑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날을 우리 후세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OC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자마, 성시화운동본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남가주장로회 등 교계 단체 외에도 LA한인회, 민주평통, FACE(KCCD), 예비역군목회, 대한민국육군협회, 재미헌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이 후원했다.

김준형 기자



정례 회의에 참석한 구경모 교무처장, 이상명 총장, 강우중 원격교육원 디렉터.

미주장신 ATS 정회원 자격 취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학위 인가 기관 중 하나인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Accredited Member)으로 인준됐다. 한인신학교 가운데 ATS 정회원 자격은 2013년 월드미션대학교가 최초로 취득했으며 그 후 2016년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뒤를 이었다. 현재 미성대학교가 ATS 준회원 단계까지 와 있다.

미주장신대는 지난 2018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정례 회의의 겸 ATS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회원으로 승인됐다. 신학교는 물론 종합대학교 내의 신학대학원까지 270여 학교가 가입된 ATS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얻음으로써, 미주장신대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1977년 설립 이후 미주장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

표적인 선교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지난해 11월에는 한인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과정을 개설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이 학교에는 신학학사(B.Th.), 교역학석사(M.Div.),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MACCP),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과정이 있고, 학사 및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또 학사 학위의 경우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 영어권 다민족들에게도 다가서고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한 학사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Title IV)를 받을 수 있다.

김준형 기자

한미기독교센터 자선음악회

한미기독교센터가 이사장 및 이사 취임식과 함께 유니세프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15일(주일) 오후 4시 30분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백지영 이사장이 이임하고 한

기형 이사장이 취임한다. 이취임식 설교는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가 한다. 또 오위영, 황혜경 등 LA의 여러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자선음악회가 이어진다.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전 세계 난민 어린이들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	--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마음이 그대로 인생이 된다!
 주님을 나의 찬양이 되게 하라!

마음이 그대로 인생이 된다
 주님을 나의 찬양이 되게 하라!

두란노

한기홍 목사 최시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단 한가지는 사람의 속 속 속 사람입니다.
 LA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창립 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후, 전 교인들이 사진 촬영했다.

“교회 개척 후 3년, 살아남은 것도 은혜인데...”

샘물교회 창립 3주년 맞아 단기선교, 장학금 수여, 침례식

샘물교회가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봉헌했다. 24일(주일) 창립 3주년 감사예배에서는 과테말라 선교팀 파송식과 장학금 수여식, 침례식이 진행됐다.

담임 정기정 목사는 “3년 전에 청년 중심으로 창립한 샘물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정원에 심은 나무가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꽃과 열매를 맺으면 큰 기쁨이 되듯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창49:22-2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 목

사는 “샘물교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며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시대 쓰임 받고 사라지는 교회가 아닌 생명의 샘물이 차고 흘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고 축복했다.

이어 과테말라로 파송되는 선교팀들의 선교 보고 후, 찬양과 함께 전 교인이 뜨겁게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샘물교회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모아진 헌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총 3,600불을 신학생과 대학생 청년들에게 각

각 전달했다.

침례식에서는 총 8명의 성도가 신앙고백을 통해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침례를 받은 한 성도는 “젊은 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여생을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샘물교회 단기선교팀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과테말라와 아리조나 호피족 선교를, 청년그룹은 7월 22일부터 한 주간 시애틀 거리선교를 떠나게 된다.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부부 위기



김영실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2015년 한국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 중 결혼 4년 미만의 신혼 이혼은 23.5%이고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은 28.7%이며 하루 400쌍 정도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잘 넘어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럼 부부가 직면한 위기를 잘 넘겨 행복한 동행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각각 독특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자신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른 가운데 서로 배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둘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보완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싸움은 하되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므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갈등을 넘어 조화를 이루는 건설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절대로 흥분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귀를 가지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남과 비교해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우자를 자기 기준에 맞춰 변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부부 싸움이 잦다면 부부가 같이 갈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묵상을 나눔으로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거나, 대화를 통해 부부 생활 수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배우자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한다. 게리 채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람마다 사랑받는다는 생

각이 드는 언어가 다르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넉넉히 채워지면 사람의 행동이 변하며 사랑 탱크의 사랑 레벨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혹시라도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한다면 배우자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넷째, 배우자의 잘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여야 한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사랑의 능력을 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엄청난 용서를 떠올리고, 확실한 용서의 결단을 내린 후,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추운 겨울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부부도 춥고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부부는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7)의 말씀대로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다면 부부 위기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뀔 것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우리 민족 구한 피난선에서 6·25 행사

6·25 제68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과 남가주목사회(회장 샘신 목사) 주관으로 샌페드로 항에 정착해 있는 SS 레인 빅토리 호 선상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 열렸다. 이 배는 6·25 당시 원산에서 7천여 명을 피난 시킨 역사적인 배다.

제1부는 문화행사였다. 선상에서 K-POP 청소년 무용팀들과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무용팀들이 부채춤을 추어 참석한 외국인들과 한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제2부 순서는 양경선 목사(남가



SS 레인 빅토리 호 선상에서 1부 기념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주목사회 총무)의 사회로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부르고 최학량 목사가 시작 기도를 했다. 샘신 목사가 인사말, 강희만 목사(전주영생교회)가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이 배를 타고 피난한 조유규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영 김 후보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우호 목사와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행사는 신희성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THE 15TH ANNUAL CONCERT
LOVE STORY ON WHEELS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출연진: KAM 코랄, SCDC 수화찬양팀, SDM 찬양팀

특별초청: Bar. 강주원

특별출연: 배우은 (Rachael Bae)

Sunday · July 15
7:00PM · 월셔연합감리교회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주최 샬롬장애인선교회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323) 731-7724 • www.shalommin.com

후원 CGNTV GBC 미주특별방송 크리스천에브리데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 위클리 기독교일보 국민일보 KCBN CTODAY



미성대학교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미성대학교 6대 이사장 김광수 목사 취임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제 6대 이사장에 김광수 목사(성문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6월 24일(주일) 오후 4시 성문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취임 감사예배에서는 김광렬 목사(산호세중앙교회)가 이임하고 6대 이사장으로 김광수 목사가 취임했다.

이날 예배는 류종길 총장의 인도로 미성대 이사인 류호주 장로가 기도하고 총무이사 신용석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초대 총장이자 이정근 목사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신학교 학생 한 명을 잘 키우면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선교사 파송만큼이나 제대로 된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 위대한 일에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류종길 총장이, 이임하는 김광렬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포옹하며 지난 임기 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김광렬 목사는 “낮은 자세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성결교단 총회장 최경환 목사가 김광수 신임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며 축사를 전했다. 최경환 총회장은 “신학교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다. ABHE 정회원과 ATS 준회원의 멤버십을 취득한 미성대가 신임 이사장과 함께 미주에 소문난 명문 신학

교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저를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한다”면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섭리를 따라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성삼 목사(시카고 성산교회 원로)는 격려사에서 “미성대가 이제 세계를 바라보며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명문사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선희 전도사(성문교회)가 축사를 불렀으며 모든 순서는 사우스베이신교교회 원로 이기홍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미성대는 8월 27일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323-643-0301



기쁜우리교회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쁜우리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크레센타 벨리 커뮤니티 리저널 공원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야외예배를 드렸다. 기쁜우리교회는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예수초청잔치와 함께 환경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섭리를 따라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 세계(시18: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경진 목사는 “창조 세계의 신비는 제2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더 잘 돌보는 사명을 확인하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 친교시간은 장기자랑,

OX 년센스 퀴즈, 보물찾기, 목양 구호 제창대회 등 프로그램으로 전 성도가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목양별로 준비한 디저트 콘서트가 단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과일로 성경적인 의미를 표현하여 맛과 멋을 드러내며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한 4목양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목양 구호 제창대회는 6목양이 예수초청잔치의 주제를 잘 드러내 트로피를 수상했다.

김경숙 권사는 “매일 말씀을 통해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한데, 전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한 마음으로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그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회는 오는 9월 30일 예수초청잔치를 열어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와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미기총 대표회장에 심평중 목사 20주년 맞이...달라스에서 총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달라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심평중 목사(오클라호마, 로턴장로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총회 첫날 개회예배에 이어 통일 기도회, 미기총 및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간담회, 각 지역 교회협의회와 미기총의 임원회, 선교단체장 간담회 등으로 시작했으며 둘째 날에는 미기총 정기총회 및 목회자 재정관리 세미나,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다시 통일기도회, 또 미기총 임원회와 공천위원회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미기총의 20년 발자취를 돌

아보는 선교 보고, 그리고 폐회는 대표회장 이취임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세기총(정서영 대표회장)의 신광수 사무총장, 김동욱 상임회장, 전기현 후원이사장 등 수십 명의 임원이 참석해 미기총의 지난 20주년을 축하해 그의 미가 컸다.

한편, 미기총은 현재 미주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 2018년 1월에는 미 전역의 125개 교협들이 함께 모여 미주한인교회 115주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미주 한인 사회를 향한 예배와 선교, 봉사의 정신을 갱신하는 기회로 삼고자 다짐한 바 있다.

미주 4,500여개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16차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윤사무엘 목사, 사무총장 임형태 목사, 서기 박병석 목사)에 의해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 각 교협의 활동 상황, 회원들의 설교, 기도문, 수필, 간증을 모아 편집하고 각 교협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미기총 20년 발자취 이야기”를 발간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미기총 대표회장으로 섬긴 역대 목회자는 3대故 심학구 목사, 10대 한기형 목사, 13대 송정명 목사, 16대 한기홍 목사 등이며 차기 회장에는 OC교협 회장을 지낸 민승기 목사(갈보리장로교회)가 내정돼 있는 상황이다.



심평중 대표회장 취임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 열린다

남가주와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돕는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빈곤국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각종 의료 보조 기구를 전달하기 위해 제15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7월 15일(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행사가 열리며 KAM

코랄, SCDC 수화찬양팀, SDM 찬양팀, 바리톤 강주원이 출연한다. 배우 은 학생도 특별 출연한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휠체어를 포함해 약 5만 점에 가까운 의료 보조기구를 해외 장애인들에게 전달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후원 문의) 323-731-7724

미주크리스찬문인협 신인상 발표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가 2018년 제32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 부문 당선에 원대현의 ‘꽃’, 가작에 조진숙의 ‘반달’, 장려상에 이민배의 ‘봄나물’, 수필 부문 당선에 최준배의 ‘행복이란’, 가작에 박동배의 ‘인생의 이모작이 아름답습니다’, 장려상에 김장진의 ‘주레가 두고간

하얀 장갑’, 체험수기 부문에 당선은 없고 가작에 박용호의 ‘손을 들어라’, 단편 소설 부문에 당선은 없고 가작에 신행원의 ‘달빛 사랑 쌀 한포대’, 신앙 부문 당선에 박동식의 ‘가룟 유다가 예수 어머니께 드리는 봄날의 마지막 편지’다. 시상식은 7월 28일(토)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미정. 문의) 213-249-0771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인당 해결을 한 달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 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0>

마포삼열 선교사를 그리면서

미국을 여행 온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하려면 필자는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선교사님의 묘소를 방문하라고 권한다. LA에서 101번 프리웨이로 1시간 남짓 올라가면, 벤추라 해변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해변 마을인 카핀테리아(Carpinteria)가 나온다. 뒤에는 로스파드레스 산맥이 아름답게 자리한 산 밑자락 오래된 공동묘지에 선교사님의 묘소가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2004년 추수감사절 저녁, 은사이신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총장 서정운 목사님께 문안 전화를 드렸는데 서 목사님께서 “이 목사, 내가 지금 어딜 갔다 왔는지 알아?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묘소가 발견되어 내가 지금 거기 다녀 왔어.” 하셨다. 필자는 그때서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며 웬지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곳의 위치를 여쭈었다. 곧바로 다음날 그 묘소를 찾았고 예전에 없던 전 교인 야외예배를 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 묘소에 가서 드렸다.

그 자리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92세의 연세로 정정하게 살아계셨다. 그 내외분과 아드님까지 자리를 하여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운, 한인교회 최초의 마포삼열 선교사님 묘소에서 야외예배였다.

그 후에 필자는 지금까지 매년 여러 차례씩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을 인도하여 그 묘소를 방문하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의 선교 영성을 우리 후세대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오곤 하였다.

이제 그 묘소에는 유골의 일부만 안장되어 있고 그때 우리를 환영해 주셨던 아드님-그 이름도 사무엘이다- 내외분의 묘소가 옆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지난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유골 이장 위원회가 조직되어 선교사님의 “나를 조선 땅에 묻어 달라”는 뜻을 소천하신지 10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필자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 그 묘소를 몇 번 찾아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끼친 이야기들을 들곤 했다. 이기풍 청년 불량배가 던진 돌에 맞아 턱 아래 흉터가 생긴 이야기, 그 이기풍을 목사님으로 만든 이야기, 한국인 최초 7명의 목사님들을 안수하신 이야기, 숭실학당, 평양장로회신학대학 등을 설립하여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신 이야기,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쫓겨난 이야기 등등 26세에 조선에 와서 46년간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72세에 추방되어 쫓겨나신 선교사님, 꿈에도 그리는 조선 백성을 사모하시다가 태평양 연안 바닷가에서 조선 땅 쪽을 바라보시며 사시고 3년 후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선교사님 약력을 유심히 들었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오기도 했다.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서 큰 아들은 EM 목회사역을 하고, 두 딸들은 대학생 선교사로 중동 I국과 E국에 1년씩 나아가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우리 부부도 선교지를 향하는 사역으로 사는 선교 가족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믿는다.

오래 전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너무도 큰 선교의 빛을 지고 산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번만이라도 그 묘소를 방문하고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조선 사역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들을 갖기 바란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실크웨이브미션(대표 김진영 선교사) 기도 동역자들이 야외예배로 다녀올 예정이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덴마크의 휘게스리운(Hygge) 행복

덴마크의 행복을 공부하면서 덴마크어 휘게(Hygge)를 만났습니다. 휘게는 덴마크의 행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휘게를 처음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덴마크의 제페 트롤리넷 기자는 “덴마크의 사회적 평등과 안전한 삶이 보장받는 복지 모델과 더불어 휘게 문화는 행복지수 세계 1위 덴마크의 행복 비결”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휘게를 직역하면 편안함, 아늑함, 기분 좋음, 여유로움의 의미를 가진 영어 코지니스(coziness)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휘게는 덴마크 시민들의 일상에서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삶의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용례를 보면 휘게스리운(Hygge) 저녁, 휘게가 있는 식당, 휘게가 있는 북장, 휘게가 있는 자동차, 휘게가 있는 파티, 그리고 휘게가 있는 선물 등입니다.

휘게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누리거나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휘게는 소박, 만족, 여유, 그리고 감사가 녹아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휘게를 알면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과 감사, 의미가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휘게 개념을 가진 덴마크인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덴마크인들은 일상 삶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습니다. 만족, 의미 그리고 감사의 삶이 휘게스리운 삶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찾는 덴마크 사람들은 커피 한 잔도 휘게스리운 시간을 추구합니다. 저녁식사도 온 가족이 모닥불 앞에서 휘게스리운 저녁 식사를 도모합니다. 휘게스리운이 꼭 비싸고 화려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겸손한 식탁과 촛불로 휘게스리운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룬트비와 휘게의 관계를 설명하고 행복국가 덴마크에 대한 글들을 마치려 합니다. 덴마크는 과란만장한 상실의 역사를 경험했습

니다. 이런 역사적 아픔으로 망연자실한 덴마크 국민들을 그룬트비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설득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민족이 되자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그룬트비에 의해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만끽하는 행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휘게 안에 녹아 있는 덴마크인들의 행복은 우리들이 말하는 일상의 행복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고상한 것입니다. 휘게스리운 행복은 단순한 만족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휘게가 품고 있는 덴마크식 행복은 감사, 만족, 여유, 절제, 나눔, 신뢰가 조화된 고상한 행복 문화입니다. 휘게는 감사입니다. 휘게는 누림입니다. 휘게는 만족입니다. 휘게는 존중입니다. 휘게는 양보입니다. 휘게는 어울림입니다. 휘게는 신뢰입니다. 휘게에 담긴 행복은 하늘나라 문화에 담긴 성경적 행복입니다.

고민 없는 “즉흥적, 비민주적” 노숙자 쉼터 반대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청원으로 야기된 한인타운 분할 건에 관한 투표를 잘 마친 한인사회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다음 문제를 직면했다. 바로 노숙자 쉼터 건립 문제다. 노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가 한인타운에 건립된다는 뜬금없는 발표 후에 한인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세워지는 노숙자 쉼터 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한인사회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는 당국자나 의원들의 태도는 원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 쉼터 건립 안을 들여다 보면 주민들의 동의만 없는 것이 아니다. 노숙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고 체계적인 로드맵도 없다. 정기적으로 노숙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 한번 없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도와야 한다. 한인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이 점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한인교회들과 한인 자선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숙자들을 도와왔다. 이런 한인들을 노숙자들을 도울 마음도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회의 문제를 짚어지고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WCC(Wilshire Community Coalition) 대표를 맡아 주민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정찬용 변호사를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란 질문에 정 변호사는 격정을 토로했다.

“A부터 Z까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여된 이 안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어떻게 돕는 것이 노숙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붓는 프로젝트입니다. 수많은 공청회와 주도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너무 즉흥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의논해야 합니다. 쉼터를 짓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재할이 필요한 노숙자들에게는 재활 프로그램을,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WCC 대표 정찬용 변호사

램을, 그리고 수용과 격리가 필요한 노숙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설령 쉼터 건립이 최선의 조치라 해도 다른 지구에서처럼 다수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WCC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은 오는 30일(토)에 1만 명 꺾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한인타운 분리 반대 운동을 벌였던 그 열정과 단합됨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힘을 모은다고 전했다.

강태광 편집위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8 교직자 연합수양회

주제: 행복하십시오!

교직자님들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금번 2018 교직자 연합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과 심을 얻고, 행복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주님안에서 사랑합니다.



Main Speaker
강태광 목사



Guest Speaker
오병익 목사

- 기간 : 2018년 7월 2일(월)~4일(수)
- 장소 : Hyundai Resort & Spa Hotel
- 주관 :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
- 후원 : 월드쉐어 USA, 크리스천헬스케어 한인지원센터,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사도행전 19: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가로 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도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22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세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증인 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고린도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고 큰 마귀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야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서 고기비늘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사도될 자격이 없다며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의 간교한 수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그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취직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도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이들도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던 이들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가라 명하셨고 그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를 위한 사람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24-27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 아볼로를 전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더 많은 선교에 앞장서

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3:11-12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는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진리 안에 결실되어 하늘나라 창고로 추수해 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였던 열두 사람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붙잡힌 삶입니다. 험기와 정욕, 교만, 허세, 자존심 같은 것들은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시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 끝까지 성령을 곱씹으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이(삼상16:14)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살아왔는지를 자문(自問)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손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의 제물되기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며(행2:38-39)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 되시고(롬8:16)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요17:24).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고후13:5)”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Ko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

한미기독교센터 이사장 이취임식 및 자선음악회

우리들이 이곳에 이민자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삶의 구심점을 잃고 살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기독교센터는 우리 교포사회의 모든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봉사기관입니다.

금번 이사장 이취임식 및 이사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난민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15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로스엔젤레스 한인침례교회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문의 조셉 이 213-255-1677 / 에스터 백 213-381-7755

제 1 부 예배 / 설교 :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환영사 : 박성근 목사(로스엔젤레스 한인침례교회)

제 2 부 이사장 이취임식 및 이사 취임식, 이임이사장 : 에스터 백 목사, 취임이사장 : 한기형 목사

제 3 부 Unicef를 돕기위한 자선음악회, Olven Baum 양상블(대표 : Esther Shin), 독창자 : 황혜경 집사, 오위영 목사
오토하프와 함께하는 요들송 : 최용순 장로, 국악 2중주 : 이병상 목사, 지윤자 사모(지윤자 국악원)

제 4 부 식사 및 교제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허리통증 해결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혀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묵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근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 | | |
|--|--|
|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
|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
|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져,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 |
|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 |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 특별기고

교계도 단합하면 된다

이번에 우리 한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 마디로 감동이었다. 더구나 한인 교계가 단합되었던 것이 감동을 이루어 낸 한 축이었다. 짧은 기간에 보여주었던 단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만방에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지난 42년간 한인타운과 연관된 생활을 해 왔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투표에도 참여를 잘 해온 편이다. 그런데 투표 행렬이 그렇게 긴 것은 처음 보았다. 더구나 한인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몰려온 투표는 지난 40여 년간 보기가 힘들었던 모습이다. 지난 6월 19일에 있었던 한인타운 분할을 반대하기 위한 주민 투표 현장의 모습이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났더니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우편 투표를 미리 했다. 그러나 그날 투표 현장에서 도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우편 투표를 비워 두고 투표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투표 현장으로 나갔다. 그날 내가 맡은 방송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내내 계속 투표를 독려하고 호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공격적인 방송이지만 그 시간에 개인 전 화번호도 공개하면서 차편이 필요한 분들은 내 차로 모시기로 약속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날 따라 날씨가 무더웠는데도 벌써 투표 현장에는 지팡이를 든 노인들 30여 명이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3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이다. 자원 봉사자들도 피아케 아레서 몰려 오는 차량들을 정리하고 노인들을 부축하느라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물을 나누어 드리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의자를 구해 와서 노인들을 앉혀 드리고 투표장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도우미들의 몫인 것 같았다. 수많은 차량들이 몰려오는데 교회 대형 버스도 눈에 띄고 밴도 여러 차를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어떤 부동산 회사는 온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회사 차량과 개인 차량으로 쉼겨 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에 휴가를 낸 사람도 있고 가정 주부들도 있다고 들었다. 불평을 늘어 놓는 자원 봉사자들은 없었다.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다. 순수한 마음이다. 우리 이민 선배들이 땀 흘리면서 일구어 놓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가고 우리 신앙 생활의 요람 같이 생각해왔고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타운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하는 일념 때문이라.

어느 투표에서 98.5%의 성공을 얻을 수 있나?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인들은 해냈다. 거의 2만 명의 한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단합했기 때문이다. 투표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놀랐고 자원봉사자들도



송 정 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놀랐다고 한다. 투표를 주관한 시 공무원들도 놀랐다고 한다. 한인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있던 정치가들도 그 모습을 보며 좀 놀랐으면 좋겠다. 정치 헌금이 필요할 때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가오면 서도 뒤에서는 탄전을 피우는 그들도 이번에 한인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고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로 연합된 것은 큰 자람이 아닐 수 없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하나가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하나가 되고 교계가 하나가 되었다. 너나 할 것 없는 단합의 모습이다.

한인 교계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은 늦은 감이 있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목사들이 모여 이 일을 위해 급하게 범교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도회로 모이면서 교계에 이 사실을 간곡히 부탁하고 호소한 것이 5월 24일이었으니 말이다. 그 후 많은 교회들이 강단을 통해 시간 시간마다 호소했다. 교회 버스를 제공하고 밴을 내준 교회도 여러 곳 있었다. 지금까지 보기 힘든 모습이다. 외면했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았다. 교파도 초월했다.

그날 도우미로 섬기면서 길게 서 있는 행렬 가운데 교인들을 많이 만났다. 어떤 사람은 5시간을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백인 남편과 함께 60마일을 달려 왔다고 한다.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한국에서 여행중에 있었는데 강단에서 목회자가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손을 잡아 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밤 10시까지 같이 있었는데도 피곤한 줄 몰랐던 것은 역사의 현장에 나 같은 사람도 동참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커뮤니티 앞에 산적될 것이다. 그때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합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교계가 가장 서야 할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힘의 원리는 모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번 주택박람회를 준비한 샬롬센터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진 뒷줄 왼쪽 세 번째가 이지락 소장.

샬롬센터, 내 집 마련 꿈 이루세요

주택정보박람회 성황리 개최

샬롬센터가 제29회 내 집 마련 주택정보박람회를 지난 23일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매칭펀드 프로그램과 첫 구입자 용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자 정보가 제공됐다. 지난해 행사 때에는 80여 명이 200만 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지락 소장은 "주택구입자로서 자각이 충분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 정부, 시 정부, 연방 정부, 은행 등 다양한 주택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웹사이트) www.shalomcenter.net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세종대왕)기, 이민(가정)을 치로하여,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1,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음)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반)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반)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반)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안예배) (소매매일)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1(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인 사역, 후드 지역, 정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교(Healing), 기쁨(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과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할-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 EBS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12:45 한어찬양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00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983-5887 Tel: (232)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한기연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연

한기총 · 한교총과 조건없는 통합 추진 한기연 임원회 갖고 결의... 백영모 선교사 석방 노력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조건없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연은 26일 오전 제7-4차 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렇게 결의한 이유는 그간 통합이 되지 못한 것이 3개 기관이 각각 서로 다른 통합의 조건을 내걸었던 탓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날 한기연 통주위는 "한교총은 한기총 내 이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기총은 한교총 내 WCC 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며 "한기연이 먼저 조건없는 통합 추진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임원회는 기성 소속의 백영모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 당국에 구금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외교부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북핵 폐기로 이어져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날까지 평화통일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고 오는 7월 16~20일 백두산에서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요한 목사) 주관으로 백두산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기도회에는 임원과 상임·특별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 ©구세군

한국구세군 창립 110주년 기념대회

한국구세군(김필수 사령관)이 창립 110주년을 맞아 23~26일 일정으로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대회를 위해 방한한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청소년 비전축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전신 감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24일 열린 '서울·남서울 지방 연합예배'에서는 세계 여성사역총재인 실비아 콕스 부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성결의 대로로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구세군 대장 안드레 콕스는 1979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해 핀란드-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영국 구세군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제20대 국제구세군 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안드레 콕스 대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8월 2일까지로, 이후 현 국제구세군 참모총장인 브라이언 패들이 제21대 국제구세군 대장으로 사역하게 된다.

김진영 기자

소망교회, 후임 김경진 교수로 결정

서울 압구정동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가 지난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올 연말 은퇴를 앞둔 김지철 목사 후임으로 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 김경진 박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소망교회는 김지철 목사에 이어 또 다시 장신대 교수 출신을 목회자로 청빙하게 됐다.

김경진 교수는 장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M.Div.), 대학원(Th.M.)을 거쳐,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예배설교학으로 신학박사(Th.D.)를 취득하고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실천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소망교회는 오는 7월 1일 주일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청빙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용 기자

한국침례교회연합 신학 세미나 개최

한국침례교회연합(이하 한침)이 지난 18-20일 경기 파주 솔수양관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12월 교단 창립 후 처음 열린 세미나는 침례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교단 창립 취지에 맞춰 '침례교의 역사', '침례교의 신학' 등을 중심으로 2박 3일간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허긴 박사(침신대 전 총장)가 '침례교의 역사'를, 김근주 박사(스헤미야 전임연구원)가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김선용 교수(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가 '바울과 성령'을 각각 강의했다. 이 외에 '개신교의 탄생과 신학적 지형도', '침례교의 신학' 등의 강의도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침 소속 7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택 목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소 애를 끼쳐왔던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교계와 신학계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신학과 신앙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해외선교위원장 이형로 목사, 백 선교사의 아내 배순영 선교사, 총회장 윤성원 목사, 총무 김진호 목사.

필리핀 선교사 납득 못할 이유로 구금 불법 총기 및 폭발물 소지 혐의? 교단, 석방에 총력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필리핀)가 불법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 교단과 선교사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백영모 선교사는 올해 18년째 필리핀에서 사역 중으로,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 페이스아카데미(Faith Academy) 내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됐다고 한다. 체포 사유는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로 알려졌다.

백 선교사는 소명 기회조차 없이 강제 연행됐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마닐라 동쪽 끝 안티폴로시티 경찰서 유치장에 20일 넘게 구속 수감된 상태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백 선교사는 한우리복음선교법인(Hanwoori Evangelical Mission Inc) 행정관 조 라미레스, 미구엘 톨렌티노 등과 공모해 등록 허가 없는 권총과 수류탄, 총탄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 구금됐다. 경찰 당국은 문제가 된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은 지난해 12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선교법인 소속 건물을 수색했을 때 발견됐고, 관련 조사를 위해 백 선교사에게 여러 차례 출두를 명령했으나, 백 선교사가 우편물을 수취하고도 출두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백 선교사 측은 경찰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 당국의 갑작스러운 수색과 선교사의 체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곳은 한우리선교법인이 아니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필리핀국제대학교(Philippine International College)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은 대학이 아닌 선교법인 건물을 수색했고, 무장 경비의 숙소에서 권총과 수류탄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 선교사는 한우리선교법인 직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거주하지도 않는 데도, 불법 총기류 소지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백 선교사 측은 "그런 총기 및 폭발물을 본 적도 없고, 그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당국은 체포,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포 전에 백 선교사에게 수 차례 보냈다는 출석 통지서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 선교사의 부인 배순영 선교사는 "현재 거주지에서 9년째 살고 있지만, 출두 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원 서류에는 백 선교사 등 3명의 거주지 주소가 그들과 전혀 연관 없는 필리핀국제대학교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국제대학교는 한우리선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현지 유력 인사와 관련된 학교라고 한다. 경찰 측 주장대로 수차례 발부했다는 출두 명령서를 누군가 수취했다면, 법원 서류에 백 선교사의 거주지로 나오는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당시 방송국 카메라가 동행해 현장급습 장면과 발견된 무기 등이 방송에 그대로 방영된 것도 필리핀에 흔히 있는 '셋업'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백 선교사 측은 "백 선교사가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곧바로 한국 내 교단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필리핀 선교부와 현지 교민들은 "처음부터 백영모 선교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작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

혹을 제기하고 있다. 백 선교사 측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 적부심과 보석을 청원한 상태다. 지난 6일 열린 심리에서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법이치에 맞지 않으니 사건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검사 측은 답변준비 기간으로 5일을 요청했으나 아직 판사의 판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 선교사 구금 소식을 접한 교단 총회와 해외선교위원회도 여러 채널을 통해 석방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선위는 6월 1-3일 송재홍 국장과 팀장을 필리핀으로 급파해 백 선교사를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동부선교사협의회와 필리핀한인회장, 현지인 변호사 등과도 만나 보석과 불구속 재판 방안을 찾았다. 교단 내 필리핀 선교단체인 파워미션과 한우리교회 인사들도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백 선교사를 면회하고,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성원 총회장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회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 총회 해외선교위원회 등 교단 내 선교 단체와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대책위원회 구성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이 무사히 석방되기 위한 기도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송재홍 선교국장도 "구속된 유치장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에, 우선 구속 적부심 또는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판사의 정직과 판단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선교사의 체포 및 구금 소식을 국내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신변 안전과 효율적인 석방 활동을 위해서였다고 교단 해선위 측은 밝혔다.

한편, 기성 총회와 해선위, '백영모 선교사 억울한 구금 석방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선교사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백 선교사의 부인 배순영 선교사도 6월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하고 힘든 처지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풀려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도록 간절히 청원드린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게시판에는 백 선교사를 응원하는 글과 석방을 위한 서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970년생인 백영모 선교사는 2001년 1월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18년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는 교단 필리핀선교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남북교회와 은평교회에서 사역하고 총회본부 선교국 간사를 역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과 건축, 교회자립 지원 프로젝트, 도시 빈민가 급식 사역, 장학 사역, 현지 목회자 지도, 필리핀성서신학대 운영, 파워미션선교회 목회자 연장교육 등 다양한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여개 교회 개척과 건축에 기여하고 40여개 교회 60명 현지 목회자들의 사역과 생활을 지원하며 필리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필리핀 경제인연합회 퀘존지부 회원, 국제파워미션 설립 및 대표, 필리핀 국가조찬기도회 평생회원 및 이사를 맡고 있을 만큼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다.

백 선교사가 한 달 가까이 구금돼 있는 곳은 3평에 70여 명이 집단 수용돼 있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특히 백 선교사가 구금된 동안 이곳에서 감전 및 질병 등의 이유로 3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웅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밀실목사세빙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 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원예배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침례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들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thor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청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생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A)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n.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새생명교회(Thousand Oaks, CA)에서는 English Ministry, Half-Tim으로 함께 사역할 사역자를 찾습니다.

대상

Youth/EM Half (or Full) - Time
정규신학, 대학원 졸업(M. Div학위)
체류 신분엔 문제가 없는 자

제출 서류

이력서 : 사역활동 내용 포함
자기소개서 : 목회소명, 간증, 가족소개 포함
신학대학원 제학 혹은 졸업 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외 2명의 추천서
설교 동영상 2편 (영상파일/링크)
문의: jimskc@gmail.com

제출처 jimskc@gmail.com

우편 New Life Mission Church
950 Warwick Ave, Thousand Oak, CA 91360

제출마감일 2018/ 7/ 28 (토)

참고 교회 홈페이지: www.newlifemission.com

연락처 661-618-9392



새생명교회

에덴의 동쪽을 떠나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196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벡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스타인벡의 소설보다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와 거기에 출연한 반항아 모습의 제임스 딘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살리나스 계곡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한 가족의 비극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와 에덴의 동쪽에서 살다가 죽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화 에덴의 동쪽은 개척의 대상이었던 살리나스 계곡이 속임수의 땅, 큰 아들 아론을 편애하는 땅, 사랑을 받으려는 동생 칼의 채워지지 않은 분노의 땅, 그리고 욕망과 싸움과 살인의 땅임을 보여줍니다. 소설이나 영화가 동일하게 그리는 것은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고통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던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에덴동산은 항상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해지는 서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현존하는 성전, 하나님의 평강과 휴식과 환대가 있는 영광의 정원을 늘 생각했을 것

나 짐승이 출몰하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혼돈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사로잡은 바다가 더 이상 없음을 이제 다시는 유혹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자리하게 될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의 거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신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악령도 없고, 죄인도 없는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와 죄의 근원인 사탄은 물론이요, 죄의 증상마저도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에덴의 동쪽을 떠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대가 됩니다.

생각의 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A 유니온 기차역에서 알바인을 오기 위해 기차를 타기 전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화장실 앞은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다른 화장실이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도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서, 고개를 줄 밖으로 길게 빼고 줄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서히 안내실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에 화장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불평과 짜증이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기차도 잡아탈 시간이 다가오는데, 급한 화장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썩그린 얼굴로 앞을 내다보았더니, 휠체어 탄 장애인 이 줄을 같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3, 4차선이 환

2~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합니다. 무례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었고, 내 앞으로는 보내주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제 비행기가 5분 후면 이륙합니다.”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저 좀 먼저 갈 수 있을까요?” 묻는데, 순간 쾌심하게 생각하던 마음이 풀리면서 앞서가라고 길을 터 주었습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틀로 보면 이해가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앞에서 무례하게 새치기하는 사람, 인사도 무시하고 차갑게 지나가는 성도, 전화해 달라 메시지 남겼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친구, 야무리 소리쳐 불러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 알고 보니, 새치기가 아니라 줄을 넘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었고,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중에 내 인사를 놓친 것이었고, 해외 출장 중이라 전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친구였고, 가는 귀가 먹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그 날따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서 뒤에서 부르는 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흐름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겠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예배는 그 자체가 재충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장이 재충전을 위해 잠시 쉬었다면 그 결과는 볼 보듯 뻔합니다. 주일예배는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면 신앙의 존립 그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에 걸친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의 전조현상 중의 하나가 부엌이나 화장실의 물이 이전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파이프의 한 면이 파열되었거나, 오래 침전된 녹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니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 결국 물이 터져 나와 교회를 물바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의 흐름에 예민해야 합니다. 신앙의 흐름이 여의치 않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영성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심각한 훼손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신앙의 흐름에 신경을 씁니다. 주일예배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입니다.

지 않는 역기능적 상태를 불경기라 합니다. 돈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는 불황이라 하며, 파산이 속출하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가해지게 되는 비극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든 원활한 경제정책의 중심기조는 돈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일예배는 신앙의 흐름을 만드는 출발입니다. 심장이 박동을 치며 피를 온몸의 구석 구석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장기들이 쉬는 시간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듯, 주일예배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지나칠 수 없는 신앙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재충전을 위해서 주일예배 참석을 잠시 쉬

‘세상의 이치는 <흐름>에 있다’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물이 흐름을 중단한다면 지구는 멸망의 수준에 이를 것인데, 그 이유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대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름을 멈춘다면 바다의 수면이 낮아지게 되며, 그 결과 수증기의 증발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대기의 불안정이 만들어져 비가 오지 않는 지구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구는 생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니, 결국 물의 흐름이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도 흐름을 통해 존립하게 됩니다. 인간을 예로 들자면 피의 순환이 중요한데, 이 피의 흐름이 차단되면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인체에는 엄청난 길이의 핏줄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심장은 혈류를 만들어 인체 구석 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게 되니 피의 흐름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 원활한 순기능적 상태를 호경기라 하며, 돈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신정론 소설로 풀어낸 변증서 <붕어빵> 황의찬 목사

책 <붕어빵>은 소설 형식으로 '전능자 담론'을 전개하는 변증서이다. 주인공 '나'가 붕어빵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와 만나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학적으로는 '신정론(theodicy, 神正論)',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많은 '신학적 코드'를 숨겨 놓았다.

저자인 황의찬 목사(전주온고을교회)는 오랜 직장생활 후 침신대에서 석사(M.Div.)와 박사(Th.D.) 학위를 취득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인 <하나님의 기쁨부음>과 농아 자녀를 둔 목사 아빠의 참회록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이상 CLC)>을 펴냈다. 적지 않은 고난을 경험한 그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소설로 변증하게 됐는지 만나봤다.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둘 모두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목회하기 전이었기에, 처음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한때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청년회장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7남매로, 동생 둘은 성경교 목회자입니다. 조카나 친척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만 둘 다 청각장애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2급이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6년 반이 됐네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계속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답해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저주받았나' 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 늘 민감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다 보니 저만의 독특한 관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을 찾으셨는지요.

한 마디로 '하나님은 그럴 리 없으시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



붕어빵 황의찬 CLC | 248쪽

니다. 제 삶의 실존에 비춰,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노래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월호 사건, 홀로코스트, 리스본 대지진, 흑사병 때 침묵하셨느냐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 신학은 갈수록 '전능자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과 고통 뒤로 은닉하실 때조차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뒷집을 지고 서 계시지만 오히려 더 기습 아파하십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아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을 소설 형태로 풀어 내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에 대해 제가 받은 나름의 응답을 목회자들 앞에서 꺼내면, 잘 믿질 않았 습니다. 박사과정 논문으로 악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교수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책에서 밝히는 것처럼 뭐라고 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논문으로 쓰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소설 형태를 택해 각주도 참고도서 목록도 없이 이야기처럼 톡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러한 형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치받은 사람입니다. 박사과정 세미나를 하면 목사들 5-6명이 함께하는데,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황 목사님은

왜 그렇게 치받느냐?'고요. 다행히 교수님들은 제 편을 들어주시지요. 아이들이 농인인 이유도, 제 아들이 그렇게 떠난 이유도 저는 하나님께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다' 하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했다고 써 있으면 귀가 '번쩍'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하셨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저 징벌을 내리셨지요.

그 답이 이 <붕어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능자란 이런 분'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삶 가운데 만난 '좋은신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에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와 고난에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시지 않다는 것이 제가 받은 대답입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제목은 왜 '붕어빵'인가요.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붕어빵 아닙니까.

둘째로 전능자 담론을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세 사람이 대화로 풀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악과 고통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인간 앞에서 드러내고 순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빵틀에서 나온 붕어빵과 같이 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장동건처럼 만들지 않으셨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합리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사랑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적 교제란 사랑하고 사랑받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능자가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인간들을 모두 평준화시켜 버리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들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고 물으십니다.

이대웅 기자

교회 갱신의 첫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정성욱 교수의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정성욱 큐리오스북스 | 257쪽

못 하고 있는 점을 열거하고 열렬한 비판을 쏟아놓는다. 하지만 교회의 갱신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비판은 쉽지만, 갱신을 위한 몸부림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입술로 갱신을 외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갱신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오해와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 갱신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되찾아야 한다. 교회는 건물도, 구호단체도, 친교단체도, 이익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들'이다.

왜곡된 교리를 바로 세우야 함도 역설하고 있다. 성경적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정의의 복음에 대한 오해와 남용을 막으며, 율법주의적·방종주의적 구원관 등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며, 성숙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현재와 내세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을 가지며, 밝고 건강한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정립해야 한다.

대사회 신뢰도를 높이는 길에 대해서는 '성정' 담론에서 '성숙' 담론으로 나아가고, 개교회 중심주의를 몰아내 교회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눔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되어 국민들이 감동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상실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과격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교회 예산의 90%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다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희망에 기초한 교회 개혁 선언서이자 주님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하는 기도문이고,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회복에 대한 눈물의 종언"이라며 "민족을 위해 울었던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예수님,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요한의 심정으로 집필했다"고 말한다.

이대웅 기자

가족같은 교회 / 가족이상의 가치
2018 하프타임 집회

하덕규 목사님과 함께 하는 찬양과 말씀의 축제

- 일시 : 2018년 7월 7일(토) 오후 7:30
8일(주일) 오전 11:00
- 장소 : 갈릴리선교교회 T.(323)735-6412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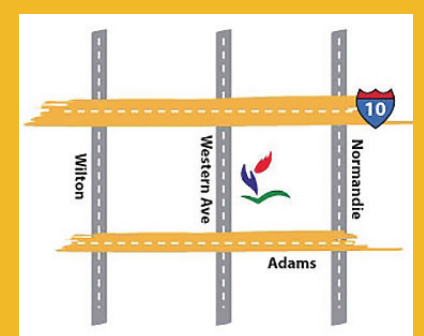
- (시인과 찬장)으로 1981년 데뷔
- 이영훈, 남궁옥분, 양희은 조성모 등에게 남타령, 재희, 한계령, 가시나무 등의 노래를 선사함
-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대표곡

- 가시나무, 자유, 풍경



갈릴리선교교회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사태 구호금 모금 중입니다.

*본 구호활동은 남가주목사회(회장 샘 신)가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벤 에후다 거리의 야경



벤 에후다 거리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9)

젊은이들의 해방구- 낭만의 예루살렘 명동거리

민족 지도자 벤 에후다와 거리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예루살렘의 명동거리라 할 수 있는 벤 에후다 거리는 오늘도 불을 밝게 비추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벤 에후다(Eliezer Ben Yehuda, 1857-1922)는 현대 히브리어의 창시자이다. 그는 민족과 나라의 회복은 언어에 있다고 보고 18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성경 히브리어를 현대화 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언어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생활 언어로 쓰는 사람이 없어 자기 자녀들이 최초의 사용자가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민족적 아픔을 극복하려면 모국어인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헌신했다.

벤 에후다 거리는 민족 지도자 벤 에후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곳은 옛 성 안에서 옴바 거리를 통해 발전하기 시작한 신 시가지로 예루살렘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시온

광장(Zion Square)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자파 거리(Jaffa Road)와 킹 조지 길(King George St.)을 교차로로 하여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 벤 에후다 거리이다.

카페, 음악, 종교, 젊음의 광장

이곳은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특히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에는 젊은이들의 해방구가 되어 여기저기서 젊음이 발산되기도 한다.

길이 약 400m 정도에 넓이가 약 10m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거리인 벤 에후다이지만 이름 있는 카페들이나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은행과 상점들로 연일 북적거리는 거리가 되고 있다. 거리의 악사들이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게이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거지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자선을 기다리기도 한다. 종교인들은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노상 카페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

가끔씩 단기 선교팀이 오면 시온광장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기도 하는데 유대종교인들의 방해로 물리적 충돌이 오가기도 한다. 그래도 이곳처럼 자유롭게 신앙을 표출할 수 있는 곳도 드물다.

폴란드에서 온 한 노령의 여인이 자신이 메시아라며 이 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유대 신비주의자들도 메시아라는 간판을 걸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자유를 찾아 나선 이곳에서도 보이지 않은 영적 대결이 사뭇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다. 관광객들은 무슨 큰 볼거리라도 있나 해서 오지만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폴린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리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순례자의 편안함을 찾고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곳이다.

벤 에후다의 경전철

주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벤 에후다에서 차고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필자가 2007년 이스라엘을 떠난지 벌써 11년이 되었으니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작년(2017년 3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렌트카를 운전하면서 잠깐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살았을 때 없었던 경전철 때문이었다. 13.9km에 23개의 정거장을 가지고 있다는 예루살렘 라이트 레일(Jerusalem Light Rail/HaRakevet Hakala Birusshalayim)은 200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했고 2011년부터 운행이 시작되었다. 기차 요금은 거리 관계없이 6.40세겔(1.82달러) 정도이다.

테러가 빈번한 예루살렘에 경전철을 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 잘 운행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4월 14일 오후에 다마스쿠스-시청 구간을 지나던 경전철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흉기 공격으로 승객 1명(영국 여성 23세)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동안 경전철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경전철 반대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하여 테러가 두려웠으면 이스라엘을 건국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강경하게 경전철을 운행하였다 한다. 이 시설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함께 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평화의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경전철은 예루살렘의 명동거리인 벤 에후다 앞 자파 거리를 지나고 있어서 지금은 벤 에후다로 가는 길이 더욱 쉬워진 것 같다.

벤 에후다에서 거리 찬양을 하던 때가 그리운데 지금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예루살렘 중앙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거리 찬양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다.

(계속)



벤 에후다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악사들



벤 에후다 거리의 시민들



경전철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6월 21일 개강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1천여 점 선보이는 세계 최대 반지 퍼레이드 LA 올림픽 길에서 열려

가보자! 반지 천국에 가서 보자!
1천여 점의 반지가 최대 할인 파격가로 전시 판매되는
반지 천국 론칭 세계 최대 이벤트!



**‘반지 천국’
론칭 기념으로
199불 상당의 진주 반지가
반값도 안 되는
59불부터 시작된다**

엄청난 양의 각종 반지 퍼레이드로, 반지만 1천여 점을 선보이게 되는 ‘반지 천국(ringsheaven.com)’ 이벤트가 지난 6월 21일(목)에 시작돼 오는 30일(토)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길의 뉴서울 호텔 상가 1층 특별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반지 천국’ 론칭 기념 10일 간의 세계 최대 빅 이벤트이다.

‘반지 천국’이 주관하는 이번 빅 이벤트는 그야말로 전에 없

던 반지 천국을 직접 보게 하고 안내하는 세계 최대의 반지 할인 파격대 퍼레이드이다.

특히 이번 ‘반지 천국’ 론칭 기념으로 199불 상당의 진주 반지가 반값도 안되는 59불부터 시작된다. 그 규모와 전에 볼 수 없었던 최저가 할인 가격대로 벌써부터 반지를 좋아하는 동포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손색이 없다. 모처럼만에 찾았던 반지를 하나 건졌다고 기분 좋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시 판매될 반지들은 한국에서 공수된 다양한 형태의 진주반지를 비롯해 홍산호, 바로크, 옥, 루비 등 각종 칼라스톤 반지까지 합세한다. 그야말로 오색찬연한 유혹의 반지 천국을 연상케 하면서 LA 올림픽 길에서 그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프리미엄급 제품까지 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반지들이 화려하게 첫 선을 보인다.

‘반지천국’ 관계자는 “이번 론칭 기념 이벤트는 반지의 경우 목걸이 세트류도 일부 전시된다”면서 “하지만 반지만을 대거 취급하는 ‘반지 천국’의 첫 행사인 데다 준비한 반지들의 수량도 엄청나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반지를 쇼핑할 모처럼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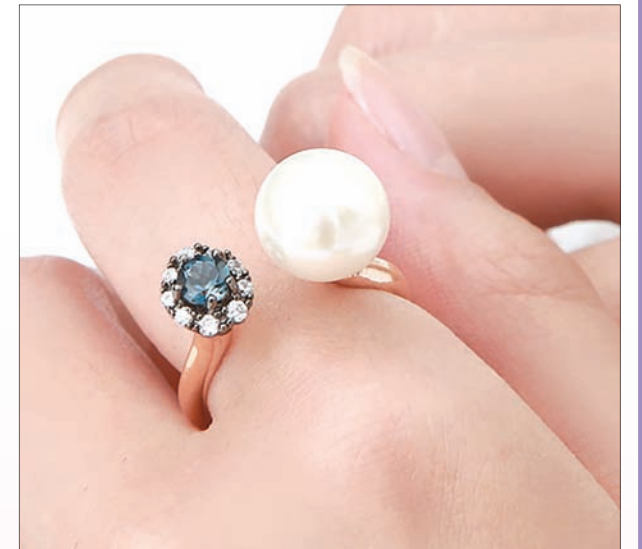
즉, 심플한 반지부터 화려한 형태의 반지까지 다 구비한 1천여 점의 반지 천국으로 안내함으로써 놀라운 반지 퍼레이드 행사로서 손색이 없음을 강조한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길에서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런 반지들이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빅 이벤트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에 론칭한 ‘반지 천국’의 반지들은 주로 진주 반지가 많이 출시됐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진주 반지가 단연 주인공 행세를 할 듯 싶다.

물론 홍산호반지와 골드반지 그리고 바로크반지, 칼라스톤 반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반지들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눈빛을 보낼 것이다. 여기에다 남양진주톤의 인공핵진주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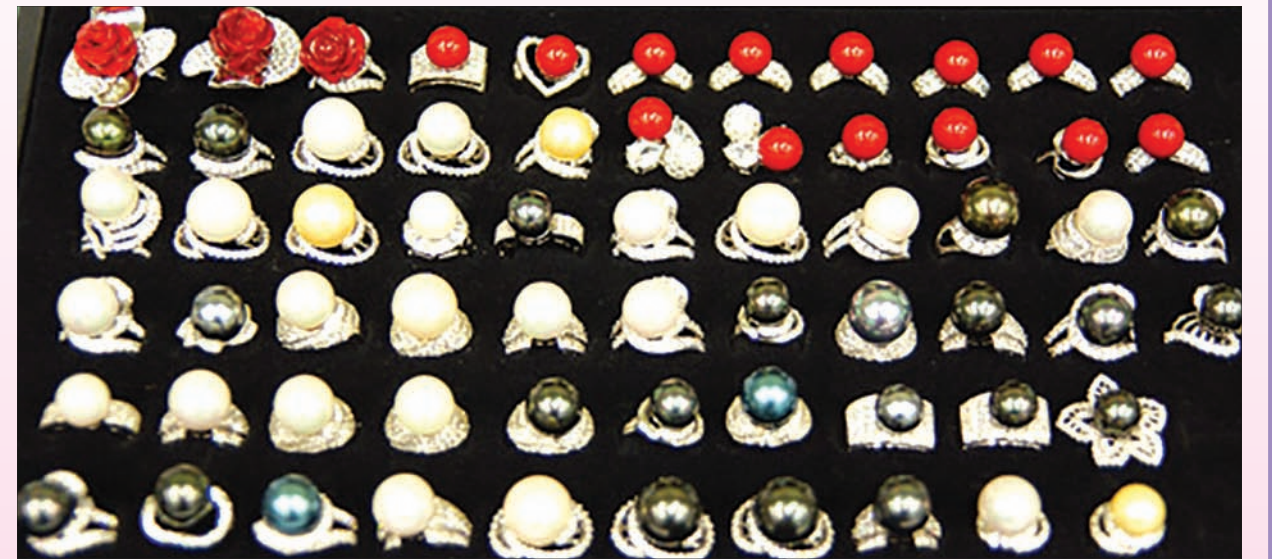
대거 출시돼 전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때를 가리지 않고 선물로 그리고 멋내기 좋아하는 어머니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주 반지는 다이아반지보다도 연출했을지 우아한 데다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많이들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지천국에서 선보이는 진주반지들은 컬러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지만 그 수에서 1천여 점이나 돼 압도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반지 천국 관계자는 “끝으로 반지를 고를 때는 먼저 착용감이 만족스러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지 천국 행사 일정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30일(토)까지 10일간
장소 : LA 한인타운 올림픽 길 뉴서울 호텔 상가 1층 특별매장
주소 : 2666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반지 천국(ringsheaven.com) 이벤트

2018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신앙으로 다음 세대 세워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0)-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 교장 이미정 집사

오래 전 춘원은 자신의 명품 수필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행하면서 '인생의 향기'라 이름 하였다. 기자는 이 책의 제목을 참 좋아한다. 인생의 향기! 근사한 말이다. 약취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향기 있는 인생이 있다. 향기 있는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다.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터뷰 하면서 인생의 향기를 느끼는 기쁨을 누린다. 향기가 진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기자는 파사로운 오뉴월 햇살이 내리쬐는 늦은 아침에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Glory Christian School, GCS)의 교장 이미정 집사를 만났다. 단정함! 처음 만난 이미정 집사가 전하는 향기였다. 한 시간 이상 계속된 인터뷰 내내 그 향기가 진동했다. 교육과 신앙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미정 집사는 아름답고 진솔한 살아있는 간증을 쏟아 냈다. 그 생생한 간증들 속에서도 단정함이란 삶의 향기가 진동했다.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찾은 교회

이미정 집사는 늦깎이 신앙인이다. 학창 시절과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진리와 공의를 찾는 젊은 날의 방향이 훗날 이미정 집사의 반듯한 신앙 생활의 밑거름이 된다. 이 집사의 인생은 순탄했다. 교육도 잘 받고, 결혼도 잘 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신의 일도 거침이 없었다. 인생 순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는 유럽 속담처럼 거침없는 이미정 집사 부부의 삶에는 하나님이 깎 틈이 없었다.

그런데 거침없던 남편의 일들에서 위기가 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을 강타할 때에 이미정 집사 남편 김정오 집사도 휘청거렸다. 평탄하게 살아왔던 남편 김 집사는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그 험한 상황에서 아주 평안해 보이는 동료가 있었다. 평안을 누리는 그 동료를 자세히 보니 그가 신앙인이었다. 그 동료가 누리는 평안의 비결이 궁금하고, 도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출석하는 '주님의영광교회'를 찾았다.

남편이 교회를 찾아 나갈 때 이미정 집사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았다. 늘 진리와 공의에 목마른 마음이었고, 삶의 짐을 지고 힘겨워

하는 남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흔쾌히 따라 나섰던 것이다. 시편 94편 1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라고 고백한다. 이미정 집사 부부가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주님을 만나다

모범생이었던 김정오 이미정 집사 부부는 교회 생활에도 성실했다. 각종 모임과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석했다. 남편 김 집사가 교회 영성 캠프(Glory Camp)에 참가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아내 이미정 집사에게 영성 캠프에 참가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남편의 권유로 참석한 캠프에서 이미정 집사는 큰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캠프의 마지막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는 회개로 이끌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회개가가 터진 것이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통렬히 회개하였다. 주님을 만난 이미정 집사는 삶이 변화되었다.

변화된 삶의 열매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미정 집사는 여러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 먼저 소박한 삶으로 섬기기 시작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삶의 편리함과 여유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관심은 몇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섬기는 삶이었다. 목자로 부름을 받아 목자로 섬기면서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 것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걷는 이웃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전도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영혼을 돌보게 되었다. 특히 목자로 섬기면서 영혼 사랑이 더욱 불타게 된 것이다. 이 집사는 첫 목자로 섬겼던 목원들과는 지금까지 교제



교장 이미정 집사

한다. 그만큼 마음이 담긴 섬김의 삶을 살았다. 목자로 영혼은 돌보며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축복이다.

변화된 삶의 열매들 가운데 가장 달콤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다. 우선 부부 관계가 변화되었다. 일 중심의 삶으로 바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부부가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서 목자인 남편을 잘 보좌하는 아내 역할을 한 것이다.

자녀 양육이라는 숙제가 사역으로

이미정 집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남가주에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이미정 집사도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 아이들 영혼을 해치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가 보였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목 놓아 부르짖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은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2016년 1월의 어느 날 뜬금없이 신승훈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를 받는다. 기독교를 시작하려 하니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거절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책임지는 무게도 감당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목사님의 의지는 분명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사립 초중고등학교인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이 시작된다. 순종은 했지만 난감했다.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커리큘럼 문제였다. 수소문을 하고 연구를 해서 모범적인 기독교 학교 교과 과정인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교육 과정을 발견한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찾아 테네시 주 내쉬빌로 가서 1주간의 강습을 받았던 것은 너무 행복한 추억이다.

믿음으로 운영하는 학교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 교장 이미정 집사는 철저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육체, 정신 모든 영역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는 교육을 도모한다.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학교 급식도 정성을 다한다. 정신의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도 꼼꼼하게 챙긴다. 영적 성장은 말할 것도 없다. 교목님과 함께 매일 드리는 예배는 영성교육의 장이다.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 현대는 정체성의 아노미 시대다. 정체성의 혼란이 젊은이들의 삶을 무섭게 흔드는 시대다. 이미정 집사와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의 온 구성원은 학생들의 건전한 정체성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와 문화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기자는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물었다. 이미정 집사는 품고 기도하는 비전과 소원을 나누었다. 학교장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 교장의 첫 번째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학교를 세우게 하소서"다.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이 명목상의 기독교 학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 학교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는 "다음 세대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학교가 되게 해주소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학생을 양육하게 하소서"다. 넷째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건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하게 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함께 발전하게 하옵소서"이다.

이미정 교장은 기도 제목조차 단정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을 섬기는 이미정 교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이 교장의 기도대로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을 배출하는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배출한 젊은이들이 남가주 아니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나아가 온 세계를 섬길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미전도종족!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한

연합수련회 청년에배자

작은교회 청년연합수련회

**8/2-4
2018**

**\$40
(w/ 매칭\$60)**

**YWAM LA
SUNLAND 베이스**

ONE HEART MINISTRY

고창현 목사
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전 한국 지구촌 교회 지구사역
(젊은이목장센터장)
KOSTA 강사

변용진 목사
God's Image
Ministry 대표

김철리 목사
베델한인교회
예배음악 총괄,
KOSTA 강사

오운태 목사
하일랜드
코너스톤교회 담임,
KOSTA 강사

김도일 목사
전 EBS PD, 밀알의 밤,
블레스 컨서트 PD,
세계등대교회 사역총괄

김유석 전도사
Dejong Film대표,
새생명비전교회
찬양인도자

조영석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CCM 찬양사역자

우명혜 간사
One Heart 인도자,
CCM 찬양 사역자

**With
원하트 워십밴드**

등록 및 후원

문의 : 김혜지 간사 213-347-5080
lynnkimoneheart@gmail.com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체크 또는 인터넷 등록

Pay to : CTSM & cosyscosys@gmail.com (Paypal)

메일 주소 : 2500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매칭\$60

한 사람의 청년을 에배자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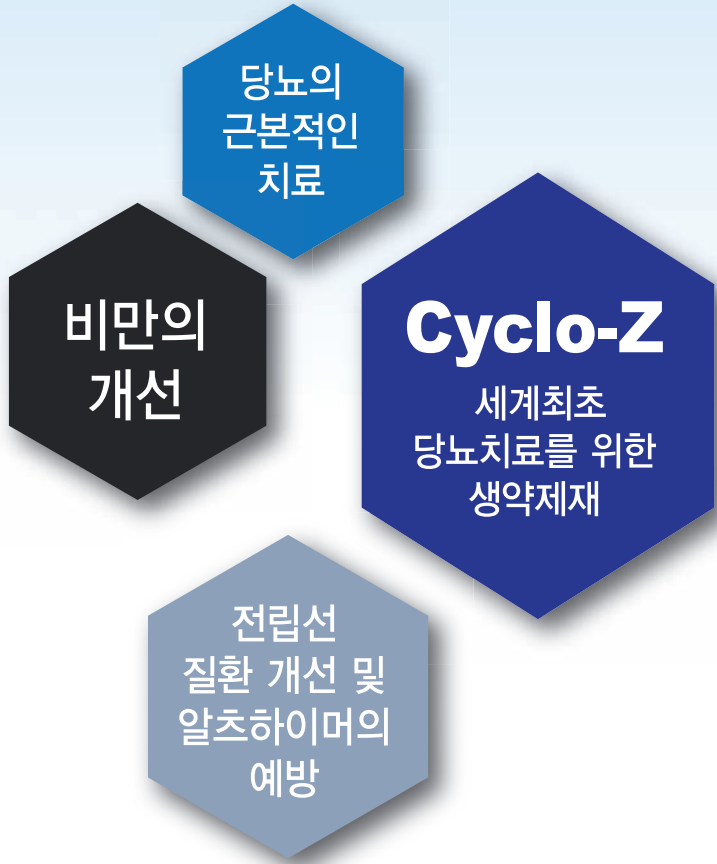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칭으로 후원해주세요. 한 사람의 청년을
에배자로 만드는데 \$60을 현금해주세요

후원 :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교회후원 : 나성순복음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하일랜드코너스톤교회, God's Image, 세계등대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상태입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